

기독교의 두 얼굴

다원주의 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 강연록

- 일시 : 2014년 11월 14일(금) 오후 7시 30분~ 9시 20분
- 장소 : IVF중앙회관 1층 산책
- 주제 : 기독교의 두 얼굴 : 다원주의 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
- 강연 : 강영안 교수(서강대 철학과)

세월호 참사에 대해 개신교에서 한 목소리로 입장을 낸 것을 보지 못했다. 가톨릭에서는 교구와 수도회를 중심으로 경향신문 광고를 냈는데 수십 만 명이 이름을 올렸다. 조르주 아감벤 이야기를 하는 등 철학을 좀 공부한 사람이 쓴 것 같은데 너무 어렵게 쓴 것 같다. 좀 더 쉬운 언어로 썼으면 좋았겠다. 어쨌든 가톨릭에서는 입장이 나왔다. 그러나 개신교는 일부가 공감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한편에는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세월호 사건뿐만이 아니다. 10여 년 전 이라크 파병 문제를 시작으로 교회 안에 양극화 된 의견의 표출이 도드라졌다. 일부는 보수적인 입장을, 젊은 층은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10여 년 됐다. 교회 안에서,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기독교의 두 얼굴이 있다. 한쪽은 보수, 한쪽은 진보라고 할 수 있다.

진보와 보수는 80년대만 해도 신학대학을 기준으로 분류됐다. 예를 들어 한신대와 변선환 교수가 학장으로 있던 시절의 감신대가 진보로 분류됐다. 장신대의 경우 중간의 위치에 있었고, 총신대, 고신대, 합신 등은 분명한 보수였다. 교회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소속은 진보, 아닌 곳은 보수로 분류됐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 그리고 김대중 정부 이후 사실상 진보와 보수 구분이 없어졌다. 교회도 진보 대 보수의 구도보다는 세대별 구도가 형성되었고, 서로 대화도 별로 없는 것 같다. 2003년 2월, 미국에 머무를 때 마침 목자의 '비공론'을 읽을 때 미국이 이라크에 선전포고를 하며 이라크 전쟁이 시작됐다. 그때는 국내 상황을 잘 몰랐다. 보도를 통해 알게된 것은 파병문제를 놓고 의견차이가 생겼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등 파병을 해야한다는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다.

최근 세월호도 그 연속선상에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1년에 교통사고로 수천 명이 죽는데 300여명 죽은 세월호 사고도 교통사고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은 단순한 사고를 뜻하는 엑시던트(accident)가 아니라, 사건을 뜻하는 이벤트(event)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냥 가다가 차가 부딪히면 그건 사고다. 그걸 통해 특별히 드러나는 것은 없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가 단순 사고가 아니라 사건인 것은 그것을 통해 무언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계시해주는 것이 있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 한국의 민낯이 드러났다.

저는 세 가지에 주목하고 싶다. 첫째로 한국사회가 독일의 학자 호네프(?)의 말처럼, 위험사회로서 기술사회가 되었고, 둘째로 한국사회가 '관피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정적이고 부패한 사회이며, 셋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사회라는 것이다. 이렇게 단어를 늘어놓으면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 기독교가 기여해야 할 사회가 보인다. 지금 보다는 안전한 사회, 지금 보다는 정의로운 사회, 지금 보다는 응답하고 책임지는 사회가 그것이다. 이것들이 우리가 지향하고 만들어가야 할 사회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안전한 교회, 평화롭고 정의로운 교회, 책임지고 응답하는 공동체인지 물어보면 스스로 고개를 가우뚱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는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또 한국교회가 왜 여기 같이 동승하고, 한국사회와 구별할 수 없는 얼굴을 드러내고 있는가. 일제 강점을 경험한 것과 한국전쟁을 경험한 것이 매우 컸다. 특히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상처를 입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한국전쟁의 경험이 무의식 속에 내재되면서 한국사회의 가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국인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생존이 되었다. 평화니 안전이니 하는 것은 사치스런 것이었다. 우리는 1980년대에 와서야 조금 잘 살게 됐다. 정치적으로 진보인지, 보수인지 하는 것도 이와 관련있다. 살아남았고 심지어 잘 살게 된 사람들이 갖는 자부심과 현재에 대한 만족을, 그 이후 세대는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이 세대 간의 차이로 이어졌다. 교회에서도 장로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말이 안 통할 것이다.

이것이 한국 기독교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네덜란드에서 공부할 때 '한국 문화와 기독교 신앙'이란 주제로 발표를 한 적이 있다. 초기에 유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윤치호 선생을 통해 유교와 기독교의 관계를 살펴보고, 역시 초기에 도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길선주 목사를 통해 도교와 기독교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불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조용기 목사를 통해 불교와 기독교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조용기 목사를 예로 들었다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다. 또 윤치호 선생이 친일파인데 예를 들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제가 그 분들을 예로 든 것은 그분들이 도덕적이거나 신앙이 위대하기 때문이라는 것과는 별개로, 전형적으로 한국인답게 신앙 생활하는 모습 때문이었다.

조용기 목사는 지금의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서 장모인 최자실 전도사와 함께 사역을 시작했다. 그 때 내세운 구호가 "지금 여기에서 복음, 지금 여기에서 구원"이었다. 조용기 목사가 내세우는 삼박자 구원이 실은 상당히 유교적인 것이다. 한국 기독교는 60년대 말까지 철저하게 말세론적이고 내세적이었고,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과 신앙이 무슨 관계인가 하는 물음은 없었다. 그로부터 큰 전환이 이뤄지는 것이 조용기 목사의 사역이다. 지금 여기에서 건강하고, 물질 축복도 받고, 영혼 구원도 받는 것이 복음이라고 했다. 그 영향으로 한국 교회는 극단적인 현세중심주의가 되었다. 장로교회들도 순복음적인 장로교회가 되었다. 신학자들이 신학의 토착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신학을 아주 전형적인 모습으로 토착화 한 것이 조용기 목사와 순복음교회다. 그러나 철저하게 현세주의적이 되었다. 한국종교의 특색이 바로 현세주의다. 유교든, 불교든, 도교든, 다 이 세상을 중요하게 여기고, 진흙 밭에 뒹굴어도 이승이 좋고, 여기서 복 받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한

국 기독교도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대개 신앙이 보수적인 사람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이고, 신앙이 진보적인 사람은 정치적으로도 진보적이다. 그런데 1970년대에 한국 기독교의 진보운동을 이끌었던 분들이 정계로 흡수되면서 사실상 한국 기독교 내의 진보운동은 막을 내렸다. 오히려 보수전통의 교회 안에서 진보적 성향의 젊은이들과 보수층이 양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것이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다. 단식 투쟁을 한 방인성 목사 같은 분도 신앙은 보수적이다. 복음주의 신앙을 따르면서도 저항운동을 하는 분들이 나타났다.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형태는 신앙은 보수적이고, 실제 사회문제는 진보적인 것이 오히려 더 복음에 합당한 것이 아닌가 한다. 물론 진보, 보수가 신앙을 규정하는 좋은 틀은 아니라고 본다. 보수는 전통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만 보고, 진보는 과거는 다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것으로 본다. 복음은 지켜야 할 것과 새롭게 개혁, 혁신해야 할 것이 다 있다. 신앙의 보수가 정치적 보수를 가져오고, 신앙의 진보가 정치적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복음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스피노자의 <에티카>에 나오는 '코나투스 에센디(conatus essendi)'처럼, 우리 속에 내재하고 있는 자기 보존의 성향을 깨뜨리고 끊임없이 자기 도전을 하는 것이 복음이다.

Q1. 한국 개신교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잠시 로마 가톨릭의 흐름을 설명해달라.

A1. 가톨릭도 1962년 바티칸공의회 이전에는 거의 보수적이었다. 1962년부터 1965년까지 계속된 바티칸공의회를 통해 가톨릭 안에서 대단한 쇄신이 일어났다. 오히려 개신교의 진보신학보다 훨씬 진보적인 신학이 가톨릭에 들어왔다. 그러다 요한 바오로 2세 이후 다시 보수화되었다. 한국도 김수환, 지학순, 윤공희 등 진보적인 주교들이 있다가 그 이후는 다시 보수화 되었다. 지난 8월에 보지 않았나. 프란치스코 교황만이 가난한 자와 연대할 것을 주장했고, 한국의 주교단은 대단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것이 지금 한국 가톨릭의 모습이다. 최근에 사제들과 수도원이 쪽 이름을 내고 의사표명을 했는데 평신도들이 주가 된 운동이었다. 본당, 교구중심의 가톨릭과 수도회 중심의 가톨릭은 온도차가 있다. 수도회가 훨씬 진보적이다. 어쨌든 개신교는 완전 분열되어 지리멸렬해 보인다.

Q2. 왜 유독 개신교만 그럴까?

A2. 개신교도 무척 애를 많이 쓰는데 많이 나뉘어져 있어서 그런 것 같다. 개교회 중심적이고, 공교회로서 개신교의 모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다. 이것이 한국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이고 이번에도 드러난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개신교가 생존하는 아주 치명적 방식이다.

Q3. 한국 사회에서는, 그리고 교회에서는 사회참여에 대해 왜 안 좋은 것으로 바라보는가?

A3. 교회는 사회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치참여를 하지 않는 것을 지향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민주항쟁을 할 때 크고 작게 개입하기도 했다. 분단 상황에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신앙적으로 사회참여를 한다고 하면 종북으로 본다. 교회에서 엄단하게 되니까 참여하기 쉽지 않은데, 비리는 더 많아지고 그러면 참여하지 않을 수 없고 선을 긋기도 쉽지 않다. 어쨌든 복음전도를 하면서 사회참여도 하는 사람은 잘 보지 못했다.

박사 논문을 쓰던 80년대 초에 휴식 차 스위스의 에큐메니컬 인스티튜트를 방문했다가 영국 성공회 사제이자 선교사로 유명한 에큐메니칼 활동가인 레슬리 뉴비킨을 만나 대화한 적이 있다. 그 때 뉴비킨에게 “당신은 복음주의자인가?”하고 질문하였는데 뉴비킨은 “난 복음주의자가 아니다!”(No, I'm not!) 하고 강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뉴비킨은 “복음주의자는 성경을 인용하고 외우지만 실제로 읽지는 않는다”고 대답했다. 성경은 사회 정의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복음주의자는 성경이 말하는 사회 정의를 간과하고 있다

1974년에 로잔언약이 있었다. 로잔언약의 한 축은 전도이고, 또 한 축은 사회정의다. 이것을 서울 신대의 조종남 교수 같은 분이 열심히 소개했지만, 한국의 주류인 장로교회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존 스토틀 같은 분은 동시에 둘을 다 강조한다. 전도와 사회정의는 둘 중 하나(either or)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both and)의 문제다. 교회와 사회라는 두 축을 고르게 잘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청어람ARMC 양희송 대표와의 대담집 <묻고 답하다>를 보면 양희송 대표와 끝까지 합의를 못한 것이 하나 있다. 저는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서 교회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세상은 동심원으로 크게 그려야 한다고 봤다. 양희송 대표는 중심은 비워두고 세상도, 교회도, 정치나 경제나 문화처럼 하나의 영역으로 두자고 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보다 크다. 그래도 교회의 중심성을 이야기 하고 싶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영역은 세상이다. 목사들의 일터는 교회다. 성도들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사들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것이어야 한다. SFC에서 오랫동안 주장한 것이다. 문제는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냐는 것이다. 신학교가 바뀌고 신학자가 바뀌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바뀌어야 한다.

Q4. 보수적인 교회는 정치적으로 보수적이고 진보적인 교회는 정치적으로도 진보이라고 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신앙적으로는 보수적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진보인 것이 좋겠다고 했다. 그러나 보수 신학의 개혁 또는 변화가 없이 진보가 있을 수 있을까? 한국교회 보수신학의 내용에서 삶의 진보성이 나올 수 있을까?

A4. 제가 이야기 한 삶의 진보는 한국 보수신학이 아니라 복음의 보수에서 나온다. 예수의 인격과 신격과 삶, 사역에서 나오는 진보성이지만, 한국교회 보수성과 보수신학에서 진보적인 삶이 나온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한국교회가 복음서에 관한 설교 잘 안 한다. 예수는 십자가 지고 부활한 것으로 끝났다고 본다. 그저 윤리적으로만 다루지, 복음서의 급진성은 다루지 않는다. 예수처럼 고통 받는 자에 대한 연민, 연대, 공감, 사랑으로부터 진보성이 나온다.

한국의 보수신학, 개혁주의는 구호로만 남아있다. 신학교수들이 교수로서 일을 해야 하는데 짓지 않는 개가 되었다. 교단신학이라서 그렇다. 교단정치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다. 개혁주의 신학도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개혁하는 것이다. 카이퍼와 바빙크는 자유주의 신학자에게 배우며 공부하다 정통신학으로 돌아왔다. 바르트도 그렇다. 저는 한국의 총신, 고신, 합신에도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공부하면 좋겠는데, 처음부터 너무 좁은 보수의 틀에만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개혁이 안 된다. 개혁주의 거장들은 그렇지 않았다.

Q5. '가나안 성도'는 다원주의의 병폐로 보는가, 아니면 현상으로 보는가?

A5. 가나안과 다원주의를 어떻게 연결할지 모르겠다. 현상으로서 다원주의와 추구해야 할 다원주의가 구분되어야 한다.

현상으로서 다원주의는 가령 한식만 먹다가 중식, 양식도 먹는 것이다. 종교도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불교, 도교, 여러 종교가 있다. 기독교가 종교인가 하는 물음이 있을 수 있지만 종교현상학적으로 보면 기독교도 종교다.

추구할 가치로서 다원주의는 종교간 갈등을 해소하자는 차원이다. 종교들간에 언제고 한 판 붙을지 모르고 서로 견제하는 상황이 있다. 세계적으로는 기독교와 이슬람이, 국내적으로는 기독교와 불교가 그렇다. 이걸 해결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주장이다.

가나안 성도 현상을 다원주의와 연관시켜 볼 수 있을까? 그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지는 않다. 오히려 가나안 성도의 출현은 기존교회에 대한 불만, 불신 때문이다. 아마 연관을 지어본다면 문화적으로 개인주의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교회나 목사님들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인문학에 열광하는지 알아야 한다. 교회는 사회와 크게 구별되지 않는데, 개인은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한다. 교회는 지금 뭘 제공하는가? 목사님들의 설교는 또 무엇인가? 뒤집어 말하면 사람들은 뭘 추구하는가? 종교적 가치인가? 탈종교적 가치인가?

Q6. 교황이 "개종시키려 하지 말고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고 했다. 진심일까? 전략적 표현일까?

A6.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아예 종교다원주의적 입장을 취해서 개종시키지 말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발언일 수 있다. 어떤 신념이나 종교가 있던 것을 굳이 바꾸어야 할 이유는 없고 거기에도 진리와 교훈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일 것이다. 또 하나는 전도하는 방식으로써 개종시키려고 하기 보다는 당신이 갖고 있는 믿음이 진실되다는 것을 삶을 통해 보여주라는 것이다. 이를 관계전도라고 한다. 물론 교황의 진심은 교황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Q7. 한국교회는 어떡하면 좋을까?

A7. 리처드 마우가 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다. 제발 좀 타인을 배려하는 기독교가 되고, 확신은 갖되 전달방식은 예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대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고 천국가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 닮자"가 되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자도가 될 텐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선생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 19세기 자유주의가 실패한 이유는 예수를 이상적인 인간으로만 설정했기 때문이다. 순서를 따지자면 예수의 구주되심이 먼저고, 우리의 일상적 삶에서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가 우리 삶의 모범이 된다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Q8. 한 기독교 미래학자가 한국의 기독교인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과거 유럽의 현상과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텐데?

A8. 유럽이 세속화되는 것과 북미와 한국의 양상이 다르다. 피터 버그라는 사회학자가 미국은 다원화는 됐지만 세속화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세속화는 종교적인 것이 공적 공간에 미치는 영향의 약화를 뜻한다. 유럽의 상실은 긴 역사를 가지고 진행됐고 상징적 사건으로서 30년 전쟁을 거치며 다른 종파의 흐름을 인정하는 '관용'이 생겨났다.

20세기가 시작할 때는 대부분 기독교인이 북미나 유럽에 있었다. 100년의 시간이 지나니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의 한국과 중국에 있다. 미국은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 않았다. 다만 철저히 개인주의화 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는데 이는 미국 삶의 방식에서 나온 것 같다. 교회 오면 신앙을 이야기 하는데 집에 가면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이 된다.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여전히 기독교 신앙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다르다. 종교적 전통이 꽤 지속되었는데 혼합적이었다. 적어도 기독교 전래 전에 당신 종교가 뭐냐고 묻지 않았다. 유교적 관례에 따라 제사를 지내면서, 도교적인 내세관을 갖고 있는 등 다종교적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단일한 종교 정체성을 요구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 과거에는 딱히 응답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을 불교신자라고 설명한다. 앞으로 다종교화 되거나, 세속화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Q9.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한다면?

A9. 앞으로 교회는 엔터테인먼트를 강조하고 소속감을 갖는 것을 지향하거나, 아니면 정말 복음의 본질로 나아가거나 할 것이다. 자연적 추세가 아니라 어떤 기독교를 지향하고, 어떤 신앙을 추구하는가 하는 것이 앞으로의 기독교 모습을 결정할 것이다. 진보냐 보수냐 하는 것이 아니라, 복 받고 위로받고 소속되고 큰 교회 가서 앉아 있다는 것으로 자부심을 갖는 것과, 또 하나는 가난하고 없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알고 삶을 나누는 모습이 될 것이다. 성서의 표현대로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게 아니고서는 쇠신은 도저히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